

# “정착부터 국적까지”...해남군 다문화가정 지원 ‘쑤쑤’

행복장려금 교육 연계 500만원 지급  
24개월간 월 7만5천원 분유비 지원  
결혼이민 귀화허가 수수료 1회 제공

해남군은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 정착과 생활 안정을 위해 3대 맞춤형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24일 해남군에 따르면 결혼 초기 정착, 자녀 양육, 국적 취득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해 다문화가정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통합을 강화하고 있다.

3대 사업으로는 ‘행복장려금’, ‘자녀 분유구입비’, ‘국적취득비용’ 지원 등이다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은 결혼 초기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과 연계해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배우자, 부부, 가족이 참여하는 한국어 교육과 가족 교육 상담 등 40시간을 편성해 90% 이상 이수하면 된다.

국제결혼 혼인 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해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 기간이 6개월



해남군이 다문화 가정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단계별 지원 정착 사업을 실시한다. 사진은 해남 관내 다문화가정이 한국어 교육을 받는 모습. <해남군 제공>

미만이 대상이다. 장려금은 2회에 걸쳐 1차로 교육 이수 후 300만원, 이후 6개월간 혼인관계 유지가 확인되면 2차로 200만원이 추가 지급되며, 현금과 해남사랑상품권이 병행 지급된다.

‘다문화가정 자녀 분유구입금 지원사업’은 2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자녀 1인당 월 7만5천원을 지원하며, 신청월부터 자녀 생일이 속한 전일까지 최대 24개월간 지

급된다. 지원금은 매월 25일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사업’은 결혼이민자의 한국 국적 조기 취득을 보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6년 6월1일 이후 국적을 취

득하고 전남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을 1회 지원한다.

해당 비용은 증명서류 확인 후 신청자 본인 계좌로 지급되며, 일부 수수료 항목이나 면제 대상, 유사·중복 지원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가능하며, 각 사업별 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해남군은 다문화가족 산모 도우미 지원, 결혼이주여성 문화 체험 지원, 결혼이민자 자조 모임 지원, 사례관리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발달·기초 학습 지원 등 다문화가정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추진 중이다.

또한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방문 상담과 생활 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복지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3대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정의 정착부터 자녀 양육, 국적 취득까지 전 과정을 촘촘하게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지속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 완도해양치유센터 ‘우수 웰니스 관광지’ 재지정

차별화 프로그램·만족도 호평  
맞춤형 관광 상품 개발 등 박차

완도군의 핵심 관광 인프라인 완도해양치유센터가 국가 인증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또다시 이름을 올리며 대한민국 대표 해양치유 명소로서의 굳건한 위상을 입증했다.

24일 완도군에 따르면 완도해양치유센터는 최근 한국관광공사 주관하는 ‘2026 우수 웰니스 관광지’ 자연치유 분야에 최종 재지정됐다.

지난 2023년 11월 국내 최초로 문을 연 센터는 2024년 신규 지정에 이어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안았다.

특히 올해 2월 말 기준 누적 방문객만 13만명을 넘어섬에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재지정 심사에서 센터는 전문적인 운영 체계와 차별화된 자연 연계 치유 프로그램, 외국인 방문객 증가, 압도적인 고객 만족도 등 다



완도해양치유센터 1층 발라소풀에서 관광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완도군 제공>

방면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았다.

군은 이를 발판 삼아 맞춤형 관광 상품 개발, 재방문 유도 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마케팅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해 해양치유산업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방침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번 성과가 군이 역점 추진해 온 치유·웰니스 관광 정책의 값진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이용객의 치유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탄탄하게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 영광군, 주민 삶의 질 향상 ‘기본사회’ 정책 닦아 올릴

7대 분야 생활밀착 시책 발굴

영광군이 주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단순한 복지 확충을 뛰어넘는 7대 분야 생활밀착형 ‘기본사회’ 정책 추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24일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달 기본사회 추진 계획을 전격 수립한 데 이어, 지난 18일부터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문 분야별 협업팀 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다. <사진>

이를 통해 기본소득, 기본에너지, 기본교육, 기본문화, 기본돌봄, 기본도시, 기본건강 등 7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실행 전략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는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군민들이 정책 변화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복잡한 행정 절차와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기존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군은 도출된 과제 중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올 하반기에는 군민과 함

께하는 정책 토론회와 현장 간담회를 열어 참여형 정책 기반을 탄탄하게 다질 방침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기본사회가 단순한 지원을 넘어 모두의 삶을 보장하는 포용 사회로의 전환을 뜻한다”며 “군민이 체감하는 생활 밀착 정책으로 사회적 신뢰와 지역 공동체의 회복을 든든하게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 함평군에 교통안전교육원 들어선다

郡-道-도로교통공단 업무협약

교통안전 전문 인력 양성 요망

함평군이 지역 내 최초로 교통안전교육원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24일 함평군에 따르면 전남 전남도,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체계적인 교통안전 교육 서비스 제공과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원 건립

업무협약(MOU)을 전격 체결했다.

세기관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굳건히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협약에 따라 전남도는 국비 확보와 제도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함평군은 신속한 건립을 위한 인허가 등 맞춤형 행정 지원을 전담한다.

도로교통공단 역시 미래 환경에 부합하는 최첨단 교육 시설 조성을 위해 예산 확보와 실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계획이다.

군은 이번 교육원 유치를 통해 전문 인력 양성 기반을 다지는 것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 교육생 유입으로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 등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교육원이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군민에게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기영규 기자

## 영암군, 내달 ‘달리는 국민신문고’ 가동

권익위 소속 전문 조사관 상담

영암군은 24일 “군민들의 해묵은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속 시원하게 해결하기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오는 4월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암군민회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화합동현장민원상담형식으로 진행된다.

당일 권익위 소속 전문 조사관들은 직접 현장을 찾아 행정과 부지는 물론 생활법률, 서민급

용, 소비자 피해구제 등 다방면에 걸친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청취하고 해법을 모색한다.

현장에서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곧바로 해결하고,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관계 기관 이송이나 당사자 간 중재를 통해 적극적으로 풀어 나갈 방침이다.

상담을 희망하는 군민은 다음 달 10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전 예약을 마친 뒤 이용할 수 있다. /영암=나동호 기자

## 목포상의, ‘AI·에너지 수도’ 도약 비전 모색

서남권 미래 성장 전략 포럼 개최

에너지 인프라·AI기술 융합 주목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목포상공회의소가 전남 서남권의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4일 목포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전남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스마트인재개발원과 공동으로 ‘AI·에너지 수도, 전남 서남권 미래 성장 비전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

이번 포럼은 글로벌 AI 산업 확산과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지역이 고부가가치 AI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실질적인 맞춤형 대응 방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정부의 첨단전략산업 정책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지역 경제와 사회 전반의 파급효과를 점검해 맞춤형 대응 전략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뒀다.



행사는 기초조연구와 주제 발표, 종합 토론 순으로 밀도 있게 진행됐으며, 참석자 전문자들은 전남 서남권이 보유한 풍부한 에너지 인프라와 AI 기술의 융합 시너지에 주목했다.

정현택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은 “지역이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과 AI 데이터센터 등을 품고 있어 디지털 에너지 수도로서의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이번 논의가 지역 기업의 참여 확대와 특화 인력 양성으로 고스란히 이어질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 강진 도깨비시장길 ‘전남형 골목상권’ 3년 연속 선정

3천만원 투입 교육·환경 개선

강진군이 도깨비시장길을 특색 있는 명소로 탈바꿈시키며 침체된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24일 강진군에 따르면 전남도 주관 ‘전남형 골목상권 첫걸음 지원사업’ 공모에 강진읍 남성리 일대 도깨비시장길(사진)이 최종 선정되면서 3년 연속 공모 선정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도깨비시장길은 과거 장남(4·9일) 상인과 손님들로 붐비던 만남의 거리였으나, 현재는 단골 손님 위주로 명맥을 이어오며 관광객 등 신규 고객 유입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군은 총 3천만원을 투입해 상인 조직 결성과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나아가 골목형상평가 지정을 추진해 운누리상품권 가맹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돕고, 지역



축제와 연계한 다채로운 행사를 열어 외부 방문객의 발길을 적극 이끌어낼 계획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이번 첫걸음 지원사업을 발판 삼아 상권의 기초 체력을 단단히 다지고 상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자생적 기반을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골목이 지속해서 활기를 띠도록 체계적인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강진=정영록 기자